

이 페이지의 폰트 : 은 타자

제1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재호, 《조선상고사》(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태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양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 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 페이지의 폰트 : Asia 타자 Light

제1장 .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 (출처 :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 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 로. 법. 미 등을 비아라고 하지마는 영. 로. 법. 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제1장 .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출처 :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 페이지의 폰트 : sm타자체 Light

제1 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이나 기술이나 직업이나 의견이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항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천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각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약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 페이지의 폰트 : sm 탁자체 Medium

제1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이나 기술이나 직업이나 의견이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각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약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 페이지의 폰트 : sm 타자체 Bold

제1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체호, 《조선상고사》(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쉴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각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약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 페이지의 폰트 : HC 타자

제 1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재호, 《조선상고사》 (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 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고 하지만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만,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제1 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 (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 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이나 기술이나 직업이나 의견이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제1 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 (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 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쉴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 페이지의 폰트 : HY 타자 Bold

제 1 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체호, 《조선상고사》 (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 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고 하며,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 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쉴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 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인 상속,보편의 강약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제1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 (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 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고 하며,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 하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이 상속,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제1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신채호, 《조선상고사》 (출처: 위키소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 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얇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로.법.미 등을 비아라 하고 하지는 영.로.법.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고 하며, 무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 하고 하지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실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사건으로 두가지 속성이니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